

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TRADE FOCUS

2020년 15호

##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및 전망

2020년 5월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강성은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 약]	i
I.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01
II. 세계경제 영향	03
III. 한국 수출 영향 및 전망	07
IV. 코로나19 이후 수출 유망 품목	20
V. 결론 및 시사점	28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02-6000-5185, bk.mun@kita.or.kr)

강성은 연구원 (☎ 02-6000-5759, se.kang@kita.or.kr)

## 요 약

코로나19로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월 한국 수출은 1.4% 감소해 미국(-3.1%), 일본(-5.4%), 홍콩(-10.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특히 인도(-12.8%)와 중국(-13.4%)의 감소율은 우리나라의 9배가 넘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우리 수출이 경쟁국에 비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가격 하락,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단가가 7.7% 하락했음에도 기존 계약물량이 나가면서 물량은 오히려 5.8% 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1분기 중 중국과 유로존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3.3%로 뒷걸음질 치고 미국은 0.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1.3%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3월까지의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일평균 수출이 부진했으나, 미국과 유럽 내 자동차 공장의 가동중단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미국, EU 등도 일평균 수출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최근 수출의 부진한 흐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철강제품·기계 등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2~4월 중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2~4월 일평균 수출 감소분의 72.4%를 차지했다.

향후 우리 수출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4분기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U자 반등의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 속에서도 소비패턴과 생활방식 변화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제품의 수출이 유망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청정 가전,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홈뷰티, 홈쿠킹, 홈트 등 집에서 식사·미용·운동을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간편식품, 주방용품, 운동·레저용품 수출이 유망하다. 또한,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전환 등 홈오피스 구축, 소비의 온라인화로 비대면 의사소통 및 배송을 위한 디지털장비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3분기 이후 소비 수요가 반등할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경영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경영전략 재점검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규제 개선,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부품·소재와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혁신 수준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본문

# I.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 발생 이후,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5.4일 기준 200여개국 350만명 이상 감염<sup>1)</sup>
- 1월 말 춘절 연휴를 전후로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3월에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전세계로 확산
  - (중국) 확진자 증가세는 2월 초 정점을 찍은 후 증가세 둔화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확진자 8만여명, 사망자 4천여명 발생(사망률 5.6%)
  - (한국) 2월 말 확진자 수 급격히 증가한 뒤 최근 둔화추세이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확진자 1만여명, 사망자 250여명 발생(사망률 2.3%)
  - (유럽) 3월 초부터 빠르게 확산되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모두 확진자 수가 18만명을 넘었으며, 10%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 (미국) 3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5.4일 기준 확진자가 120만명에 육박했으며, 7만명 가량 사망자 발생(사망률 5.8%)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 추이>

(명)



주: 5.4일 기준 누적 확진자 상위 5개국, 중국, 우리나라 확진자 수  
 자료: CoronaBoard

1)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CoronaBoard) 5.4일 10:00a.m.기준이며 사망률은 (총 사망자 수 / 총 확진자 수)로 산출됨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3.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는 적극적 대응에 나섬
- 세계보건기구(WHO)는 3.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하며 각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
  - \* 1.31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였으며, 2.28일 코로나19의 세계 확산 위험을 ‘매우 높음(Very high)’로 상향 조정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국은 입국 제한, 도시 봉쇄, 휴업령, 검역강화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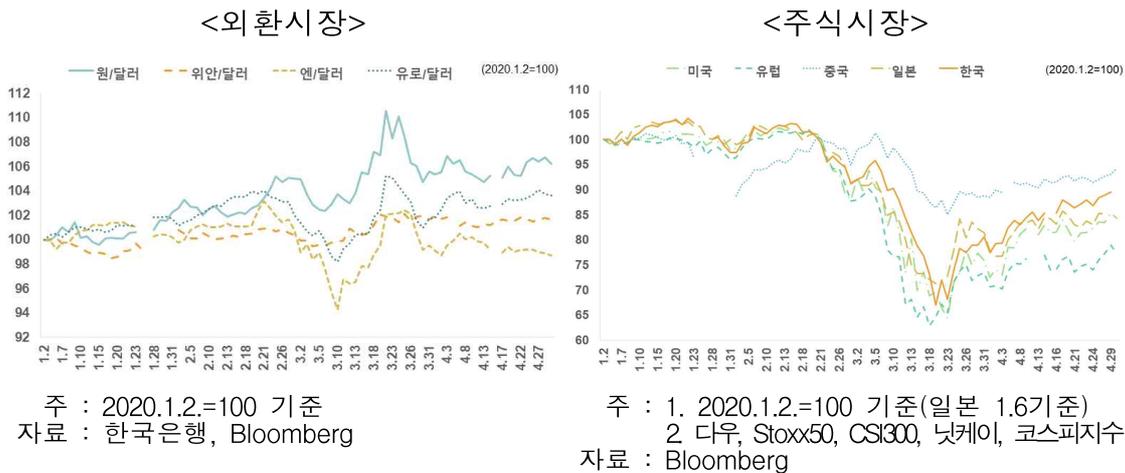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방지 주요 대응>

국가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1.21일 코로나19를 ‘을(乙)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은 ‘갑(甲)류’ 수준으로 상향</li> <li>• <b>(도시봉쇄)</b> 1.23일 우한시 및 인근 8개 지역, 2.7일에는 중국 14개성에 봉쇄령을 내렸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 시외버스 운행 중단</li> <li>• <b>(모입제한)</b> 1.27일 국내 외 단체여행을 금지했으며, 2월 7일 베이징은 3인 이상 외식 금지령을, 14일에는 광저우에서 외식금지령을 내림</li> <li>• <b>(입국제한)</b> 3.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중단</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Red)’로 격상</li> <li>• <b>(검역강화)</b> 3.30일부터 한국행 입국자 전원 발열검사 및 4.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li> <li>• <b>(역학조사)</b> 확진자 동선 웹사이트, 앱(App) 등을 통해 공개</li> <li>• <b>(선제적 검사)</b> 집단시설 전수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등 선제적 검사 통해 지역 확산 차단</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li> <li>• <b>(입국제한)</b> 1.31일 중국, 3.13일 유럽 26개국, 3.14일 영국과 아일랜드 방문 이력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등</li> <li>• <b>(여행금지)</b> 3.19일 모든 국가에 4단계 여행금지 조치 발령 및 당분간 여권 발급 중단</li> <li>• <b>(자택대피령)</b> 뉴욕주,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등 주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을 내림</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일 코로나19의 위험수준 ‘높음’ 단계로 격상</li> <li>• <b>(국경통제)</b> 3.17일 30일간 EU 외부 국경 폐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내 국경 폐쇄하거나 입국검문 강화</li> <li>• <b>(휴업령)</b>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전국의 음식점, 상점 등에 휴업령 선포</li> </ul>

자료 : 언론 보도내용 저자 정리

## II. 세계경제 영향

- 당초 세계경제는 금년 중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
- 연초 제조업 경기반등 신호, 완화적 통화정책 확산,美中 무역협상 진전 등이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음
  - \* OECD 경기선행지수 : ('19.9) 99.2 → (12) 99.5 → ('20.1) 99.5 → (2) 99.6 → (3) 98.8
-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부진하면서 전세계 실물 및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내 변동성이 확대
  -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급락



- 중국 등 주요국의 석유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OPEC+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급락해 배럴당 20달러를 하회
  -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4월 20일 배럴당 -37.63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
  - \* 세계 원유소비국 중 중국의 비중은 2003년 7.2%에서 2018년 13.5%로 확대

● 최근 반도체 가격은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글로벌 IT제품 수요 둔화로 반도체 가격 회복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

-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서버向 메모리 수요 회복으로 D램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모바일 수요 부진에 따라 낸드 가격은 하락

- \*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별 비중(% , 2019) : (모바일) 32.1 (서버) 30.8 (PC) 9.6
- \* D램 수요처별 비중(% , 2018) : (스마트폰) 33.8 (서버) 31.4 (PC) 10.1 (가전 등 기타) 24.7
- \* 낸드 수요처별 비중(% , 2018) : (스마트폰) 33.7 (SSD) 42.9 (기타) 23.4
- \* 춘절 연휴기간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비 50% 감소 PC, 마더보드 등 중국 내 판매 급감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페트로넷

<반도체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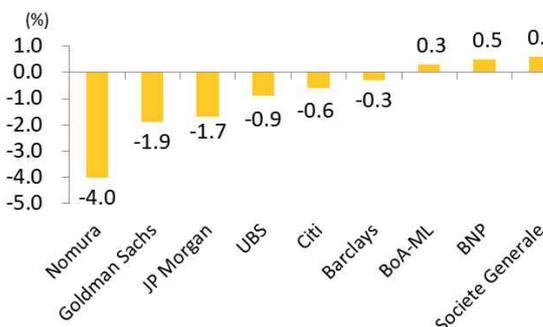
자료 : DRAMeXchange

■ 최근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 감소, 교역부진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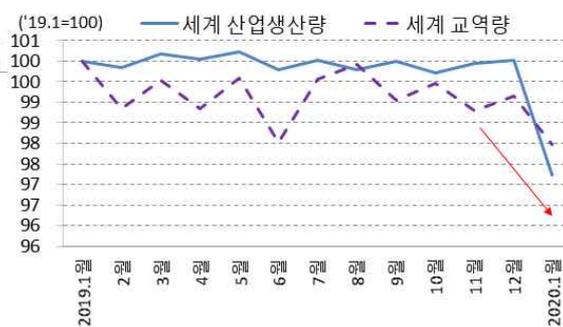
●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

-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3월말 평균 -0.9%)

<기관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글로벌 산업생산 및 교역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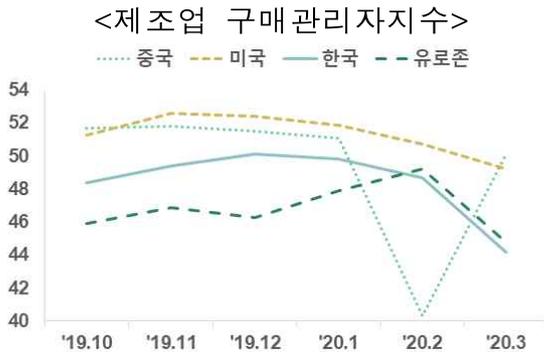
자료 : 각 사,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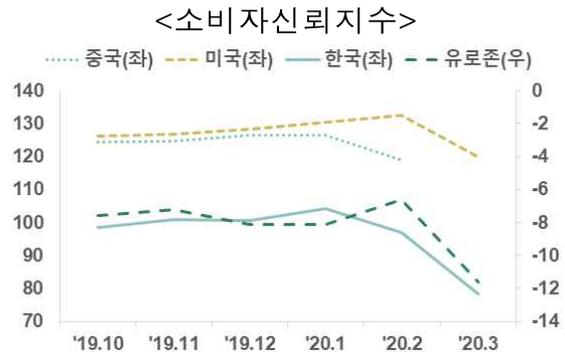
자료 : CPB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와 교역이 위축되고, 조업 중단으로 생산까지 감소하면서 시장 내 기대심리가 악화되는 모습

\* Economist에 따르면 1~2월 전년 대비 산업생산 13.5%, 소매판매 20.5%, 고정자산투자 24.5% 감소했으며, 1분기 GDP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기는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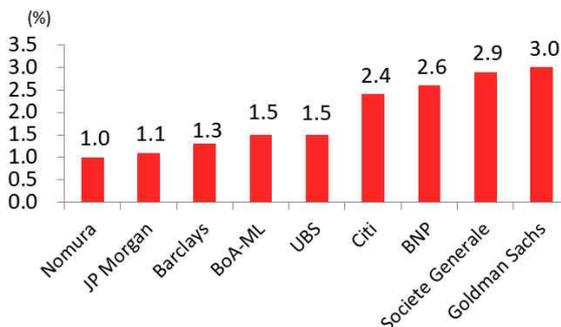
- 미중 간 1차 합의(1/15일)로 중국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이번 사태 여파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8%로 1992년 국민경제 통계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2020년 중국의 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IMF는 1.2%로 전망)

\* 코로나19 팬더믹에 대한 중국의 책임 압박, 美·中 간 2차 무역전쟁(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 상승 → 관세 인상시 불확실성 증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

- 중국 제조업 PMI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 급락했다가 기저효과로 3월 반등했으나, 상반기 내 경제활동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음

<기관별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각 사, 국제금융센터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는 U자 반등(2020년 경기 침체 후 2021년 회복)의 가능성이 높음

● 주요 경제 분석업체 및 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나리오는 ①조기종식, ②일시적 경기둔화, ③경기 침체, ④장기 경기침체 4가지로 전개 가능

● 주요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시적 경기둔화 혹은 경기침체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나, 코로나 재유행, 인력 및 물자 이동 제한 등이 계속될 경우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McKinsey는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상쇄할 경우 경제가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2020년 경제성장률 -1.5~-4.7%로 예상

\*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여 2~3개월 안에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될 경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5%이지만, 지역적으로 코로나19가 재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개월간 지속되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4.7%

- CPB는 코로나19의 통제 정도 및 경제 타격 정도에 따라 2020년 경제성장률은 -1.2~-7.7%로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영향 시나리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전제	*3개월 접촉 제한 *20년 회복신호 *생산능력 유지	*6개월 접촉 제한 *산업부문 타격 *글로벌 교역 감소	*6개월 접촉 제한 *세계경제 및 금융부문 문제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12개월 접촉 제한 *경기침체 1.5년간 지속
경제성장률 (%)	('20)-1.2 → ('21)3.5 *20년 상반기 경기 침체 후 빠른 회복	('20)-5.0 → ('21)3.8 *20년 경기 침체 후 '21년 회복	('20)-7.7 → ('21)2.0 *4분기간 경기 침체 후 '21년 더딘 회복	('20)-7.3 → ('21)-2.7 *6분기간 경기 침체 *21년 회복 신호 無
실업률 (%)	('21)4.5 *정부부양책으로 실업 제한적 발생	('21)5.3 *임시고용계약 연장 제한 및 취업난	('21)8.4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21)9.4 *장기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대폭 증가
정부부채 (%)	('20)49.9 → ('21)48.4 *빠른 회복으로 정부부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20)55.4 → ('21)56.1 *경기침체 및 장기 부양책으로 인한 부채 증가	('20)60.4 → ('21)65.5 *깊은 경기침체 *정부의 기업 도산 방지 필요성 높아짐	('20)61.7 → ('21)73.6 *깊은 장기경기침체 *더 많은 기업의 도산구제 필요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Ⅲ. 한국 수출 영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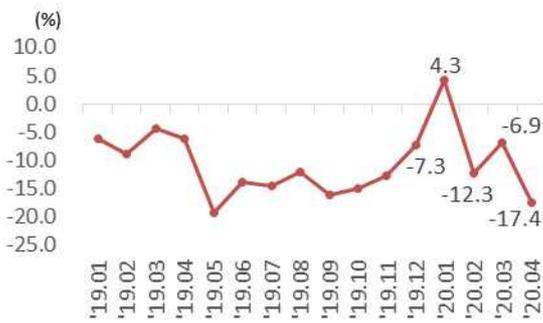
#### 1. 전체 수출 동향

■ **(대세계 수출)** 우리 수출은 1월부터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평균 기준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일평균 수출)** 금년 1월 반도체 등 회복으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으나, 2월 이후 일평균 수출은 감소(2~4월 일평균 수출 12.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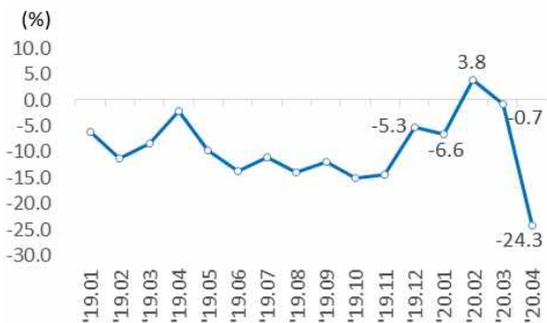
- \* 對세계 일평균 수출 증감률(%) : ('19)-11.5 → ('20.1)4.3 → (2)-12.3 → (3)-6.9 → (4)-17.4 (2~4월 -12.2)
- \* 對세계 전체 수출 증감률(%) : ('19)-10.4 → ('20.1)-6.6 → (2)3.8 → (3)-0.7 → (4)-24.3 (2~4월 -7.9)

<대세계 일평균 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세계 전체 수출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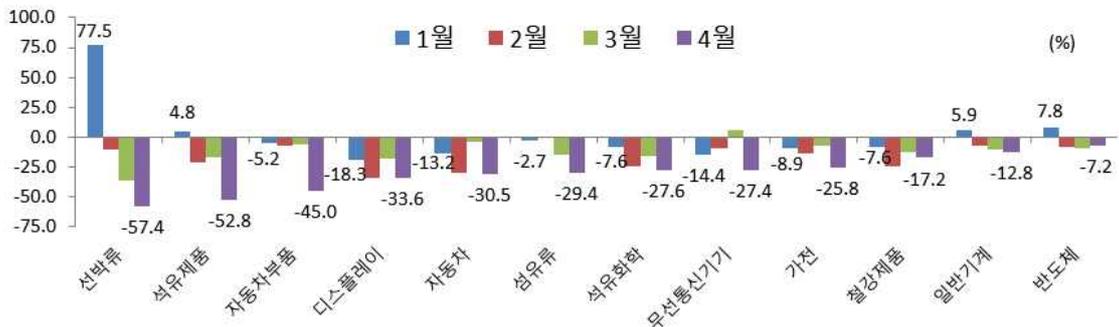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품목별 일평균)** 2~4월 선박·디스플레이·석유화학·자동차·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 등에서 10% 이상 감소(IT제품·자동차 판매 감소, 공장 가동중단, 물류차질, 유키하락 등에 기인)

- \* 2~4월 일평균 수출 증감률(%) : (선박)-38.2 (석유제품)-31.0 (디스플레이)-28.6 (석유화학)-22.6 (자동차)-20.8 (자동차부품)-19.1 (철강제품)-18.1 (섬유)-14.5 (가전)-15.1 (무선통신기기)-10.3 (일반기계)-9.8 (반도체)-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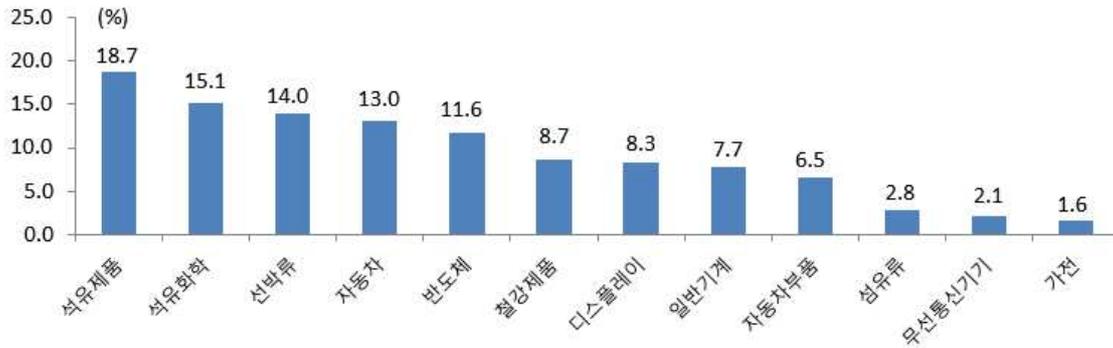
<2020년 월별 주요 품목의 일평균 수출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품목별 일평균 수출 감소 기여율) 2~4월 일평균 수출 감소(-12.2%)의 72.4%는 석유제품·석유화학·선박·자동차·반도체가 차지

<2~4월 품목별 일평균 수출 감소 기여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지역별 일평균) 코로나19 사태로 對中·對아세안·對중남미 일평균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은 하락세로 반전(2~4월 중국 감소 기여율 29.7%)
  - 수출입 물류 및 통관 차질, 출장 및 전시회 등 마케팅 차질, 수요 감소 등으로 對中·對아세안·對중남미·對인도·對EU 수출부진이 전체 일평균 수출 감소를 주도
  - 4월 들어 중국의 수출 감소 기여율이 감소된 반면, 미국·EU·아세안·인도 등은 공장 가동중단 등의 영향으로 증가
  - \* 2~4월 對中·對아세안·對중남미·對인도·對EU 일평균 감소가 대세계 감소의 76.5% 차지
  - \* 對美·對EU·對日·대중동 일평균 수출은 3월 플러스에서 4월 마이너스로 반전

<2020년 지역별 일평균 수출 증감률 및 수출 감소 기여율(%)>

	일평균 수출 증감률					일평균 수출 감소 기여율				
	1월	2월	3월	4월	2-4월	1월	2월	3월	4월	2-4월
대세계	4.3	△12.3	△6.9	△17.4	△12.2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중국	△0.6	△21.6	△12.1	△10.4	△14.6	△3.5	42.3	42.8	15.2	29.7
대아세안	21.9	△10.2	△8.8	△26.9	△15.1	96.2	15.3	21.6	26.7	21.9
- 대베트남	13.2	△7.0	△7.6	△29.0	△14.3	26.9	5.1	9.6	14.3	10.3
대중남미	△22.4	△6.1	△30.4	△50.0	△31.8	△26.3	2.0	25.7	18.0	14.0
대인도	△3.9	△3.4	△15.5	△56.0	△23.6	△2.8	0.9	6.6	8.7	5.6
대EU	△6.6	△17.4	2.7	△4.9	△6.5	△16.7	13.9	△3.9	2.8	5.3
대CIS	17.3	△5.3	△11.8	△36.7	△17.6	9.3	1.0	4.2	4.9	3.5
대중동	0.6	△15.4	1.8	△13.5	△9.4	0.4	4.4	△0.8	2.5	2.5
대일본	3.9	△16.7	6.0	△4.0	△5.7	5.1	7.8	△4.2	1.1	2.4
대미국	3.3	△7.8	9.5	△5.6	△1.2	10.3	8.7	△18.7	4.1	1.3

\* 수출 감소 기여율(%) = 지역별 일평균 수출감소액 / 대세계 일평균 수출감소액 ×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4분기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 1~3월 우리나라 수출은 1.4% 감소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임

- 수출은 1/4분기 중 반도체 등 기존 계약물량이 해외로 나가면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중심으로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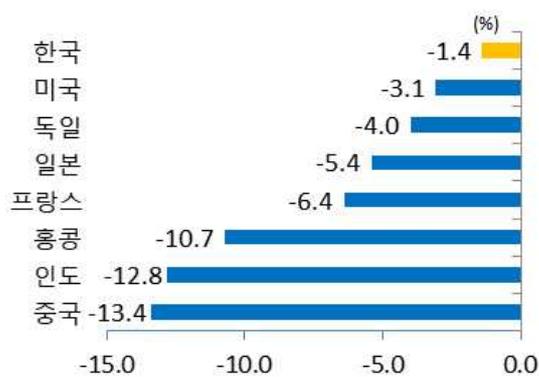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수출물량·단가지수 변동률(%) : (물량) 5.8 (단가) -7.7

● 1/4분기 중국과 유로존의 성장률은 각각 -6.8%, -3.3%로 역성장하고 미국은 0.3%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대비 1.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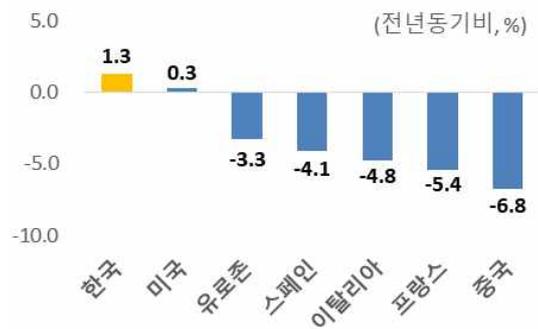
- 1/4분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4.7%)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 설비투자, 수출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

\*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전년동기비 %, 한국은행 국민계정)  
: (GDP) 1.3 (민간소비) -4.7 (정부소비) 7.1 (설비투자) 7.6 (수출) 4.9

<주요국 2020년 1/4분기 수출증가율>



<주요국 2020년 1/4분기 성장률>



주 :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기준  
자료 : WTO, U.S. Census Bureau, 한국무역협회

자료 : OECD, 한국은행

■ 업계 현장점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1분기에는 기존 물량이 나가면서 선방했으나, 2분기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 및 판매채널 영업 중단, EU의 전면적 락다운 및 각국 이동제한 등으로 4월 對美·對EU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
  - 3월 對美·對EU 수출은 각각 17.3%, 10.0%(일평균 수출은 9.5%, 2.7%) 증가했으나, 4월에는 각각 13.5%, 12.8%(일평균 수출 5.6%, 4.9%) 감소
  - \* 4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인도) -59.7 (중남미) -54.2 (CIS) -42.0 (아세안) -32.9 (중동) -20.7 (중국) -17.9 (미국) -13.5 (EU) -12.8 (일본) -12.0

<수출여건 업계 현장 점검 결과>

<b>반도체</b>	· 기존 계약물량은 해외로 나가고 있어서 수요 부진이 수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 존재
<b>자동차</b>	· 1월에 발주한 물량이 3월에 나감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2~3개월 뒤에나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임
<b>석유제품</b>	· 현재 유가 급락 등으로 수출실적이 많이 줄고 있음
<b>휴대폰</b>	· 대기업의 주문받아서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주문물량을 줄이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기존 발주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 1분기 수출실적은 양호하나, 2~4분기에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
<b>의료정밀기기</b>	· 자사 수출은 많이 줄고 있음 · 공장이 섯다운되면서 보내지 말라는 업체도 있고, 항공편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음
<b>화장품</b>	· 현재 판매 실적 굉장히 저조 · 시차를 두고 수출실적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우리 수출의 20%를 넘는 반도체 수출의 단가 하락과 스마트폰·자동차 등의 공급망 교란·수요부진, 석유 제품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 예상
-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의 수출 감소 우려
- 유가급락에 따라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단가 하락
  - \*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온라인 교육·전자상거래 등 활성화로 컴퓨터 수출은 호조

<코로나19의 주요 품목별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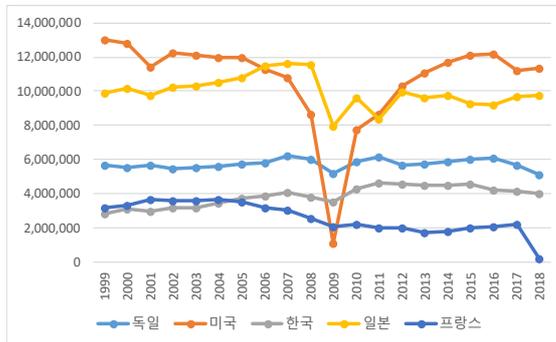
품 목	영 향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용 수요 감소 등으로 업황 둔화 가능성, 다만 온라인 이용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등 서버용 수요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li> <li>· 애플 5G 스마트폰 등 신규모델 출시 연기 등으로 수요 감소</li> </ul>
석유제품,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유가 급락에 따른 단가 하락, 인적·물적 이동 제한에 따른 수요 위축, 자동차·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li> <li>· 최대 석유소비국인 美·中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심화 전망</li> <li>* 글로벌 원유 소비 비중(% , '17년) : (미국)20.2 (중국)13.0 (인도)4.8</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감소·생산차질 등으로 업황 부진</li> <li>* 폴크스바겐 등 유럽의 자동차 4사는 부품 조달이 어려워 공장가동 중단</li> </ul>
무선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물적 이동 제한, 구매력 감소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위험도 상존</li> <li>*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 中 정보통신연구원) : ('20.1)△38.9 (2)△55.0</li> <li>* 3.23일,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생산공장인 삼성 노이다(인도) 공장 가동 중단</li> </ul>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이벤트 취소 등으로 글로벌 수요감소 불가피</li> </ul>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 활성화, 데이터센터 시장 내 전자상거래 관련 SSD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확대</li> </ul>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수출에는 2017~2018년 수주물량이 반영되므로, 최근 조선업 부진이 올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li> <li>* 1~2월 세계 신조선 발주량 76.0% 감소, 한국 수주량 83.5% 감소</li> </ul>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 설비수요 감소로 업황 둔화</li> <li>· 중장비 기계의 경우 건설 위축에 따라 피해 예상</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TV 등의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디스플레이 패널 등 부품 수요도 둔화</li> <li>· 다만, 중국발 생산 차질로 LCD 패널 가격 상승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li> </ul>
철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수요사(자동차, 가전 등) 공장 가동중단으로 수요감소 우려</li> </ul>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2. 글로벌 공급망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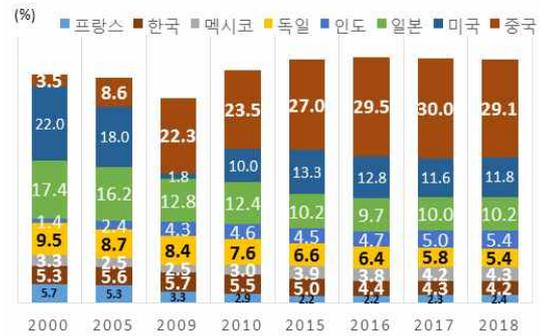
-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일반기계 등 주요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
- 자동차산업 GVC의 주요 생산거점인 중국, 미국, 독일 등의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또는 부품 조달 애로 발생시 자동차 생산차질 발생
  - \* IHS Markit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6~15일 멈추면 생산은 144만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해, 2000년 207만대 생산에서 2018년 2,781만대로 세계 1위로 급성장

< 주요국의 자동차 생산 추이(대) >



자료 : OICA

< 세계 자동차 생산 비중 변화 >



자료 : OICA

-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생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수출 부진
  - \* 반도체 시장 성장률 수정전망('20.3) : (IHS) 5.5% → 2.5% (Gartner) 12.5% → -0.9%
-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동북아 제조업 밸류체인의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사태 장기화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피해도 큼
- 사태 장기화시 중국 ICT 생산라인에 엮인 애플, 삼성 등 글로벌 IT 업체들에게도 파장 우려
  - \* 중국 전자, 통신장비 전세계 수출 비중은 2003년 12.3%에서 2019년 31.2%로 상승
  - \* 세계 자동차 생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3%에서 2018년 29.2%로 확대. 동 기간 세계 철강 생산량 중 중국 비중도 22.9%에서 51.1%로 큰 폭 상승

- 우리 기업에게도 중국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 사태 장기화시 대중국 수입이 대세계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애로 발생 우려
    - \* 현대기아차의 중국 생산능력은 211만대로 전체 자동차 생산대수의 4분의 1 차지
    - \* 한국기업 디스플레이 생산능력의 22%, 반도체 생산능력의 18%를 중국이 차지
    - \*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03년 12.3%에서 2019년 21.3%로 큰 폭 상승
  - 우한의 경우 자동차, 통신설비, 전자제품 등 하이테크 부품 및 완제품 생산기지이고, 제조업과 물류의 중심지이므로 생산차질 발생시 세계 시장에도 부정적 여파 예상
    - \* 우한에는 폭스콘, 창장메모리, 동평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법인 소재

<우한시의 주요 공업품 생산량(2018)>

품목	생산량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케이블	6,739.3만km	21.20%
에어컨	1,842.9만대	9.00%
자동차	170.5만대	6.10%
컴퓨터	1,111.5만대	3.20%
모바일	3,771.1만대	2.10%

자료 : 일본 언론보도 종합

<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2019)>

	對中 수입액	對中 수입 중 비중	대세계 수입 중 비중
반도체	18,312	(28.3)	(38.9)
철강	8,715	(13.4)	(40.3)
일반기계	7,061	(10.9)	(24.6)
컴퓨터	6,801	(10.5)	(60.0)
섬유	6,545	(10.1)	(38.2)
무선통신기기	6,106	(9.4)	(44.8)
가전	4,192	(6.5)	(59.0)
디스플레이	2,498	(3.9)	(53.1)
석유화학	2,025	(3.1)	(16.0)
자동차부품	1,560	(2.4)	(2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세부 품목별로는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의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제조비용 증가 및 생산차질이 불가피
- 정밀화학원료(이차전지 재료 등),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LCD, 자동차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등), 무선중계기 등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임

<대중국 수입액 2억 달러 이상, 수입의존도 80% 이상인 주요품목(2019)>

(백만달러, %)

품목명 (HS 코드)	對中 수입액	對中 수입 중 비중	대세계 수입 중 비중
코드 분할식 전화기 (8517123090)	1,631	(1.5)	(100.0)
이차전지 재료 (2825902090)	911	(0.9)	(91.8)
코드 분할식 전화기 (8517121090)	800	(0.7)	(99.6)
리튬폴리머 축전지 (8507601000)	688	(0.6)	(96.4)
기지국용송수신기 (8517611000)	651	(0.6)	(95.9)
화강암 (6802930000)	528	(0.5)	(98.4)
액정모니터 (8528521000)	428	(0.4)	(92.0)
마사지용기기 (9019102000)	396	(0.4)	(97.9)
용융아연도강판 (7210499090)	394	(0.4)	(97.7)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3818002010)	381	(0.4)	(95.8)
디스플레이 모듈 (8529909921)	378	(0.4)	(90.9)
태양전지 (8541409021)	374	(0.3)	(96.7)
태양광모듈 (8541409022)	368	(0.3)	(98.2)
비디오 카드 (8471802000)	347	(0.3)	(96.9)
합금강열연강판 (7225309099)	221	(0.2)	(94.1)
섬유기계 (8451290000)	208	(0.2)	(94.2)
와이어하네스 (8544300000)	1,713	(1.6)	(86.7)

주 : 2019년 기준 대중국 수입액 2억 달러 이상, 대중국 수입의존도 80% 이상인 주요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기업은 29,785개사로 대중국 전체 수입기업의 94.4% 차지하고 있어 단기에 수입선 전환이 어려움

●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기업 중 중소기업은 15,594개사로 전체 대중국 수입기업의 49.4% 차지

<대중국 의존도 80% 이상 수입 기업 수 및 비중(HS10단위 품목 기준)>

(개, %)

	2017		2018		2019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대기업	227	(0.7)	398	(1.4)	405	(1.3)
벤처기업	4,889	(15.0)	4,053	(14.6)	4,958	(15.7)
중견기업	1,356	(4.2)	1,253	(4.5)	1,366	(4.3)
중소기업	14,879	(45.7)	12,808	(46.2)	<b>15,594</b>	<b>(49.4)</b>
기타	9,084	(27.9)	7,403	(26.7)	7,462	(23.7)
의존도 80% 이상 수입기업 수	30,435	(93.6)	25,915	(93.6)	<b>29,785</b>	<b>(94.4)</b>
중국 전체 수입기업 수	32,524	(100.0)	27,700	(100.0)	31,547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참고1> 중국發 전염병 확산의 영향 과거(SARS)와 비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높아진 위상, 20%가 넘는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과거 사스(2003년) 때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세계 GDP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3년 4.3%에서 2019년 16.3%로 12%p 상승했으며,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003년 대비 약 8배에 달함
- 우리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각각 2003년 18.1%, 12.3%에서 2019년 25.1%, 21.3%로 큰 폭 상승
  - \* 중국은 2003년 우리의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한 이후 17년 연속 1위 유지, 수입에서는 2007년 우리의 수입대상국 1위로 부상 이후 13년 연속 1위 유지

<중국 경제의 위상 변화>

	2003(A)		2019(B)		증감(% , %p)	
	금액	대세계 비중	금액	대세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중국 GDP (십억달러,%)	1,671	4.3	14,140	16.3	14.3	+12.0
중국 1인당소득 (달러,%)	1,239	-	10,099	-	13.7	-
중국 수출 (억달러,%)	4,382	5.8	24,867 ('18)	12.8 ('18)	12.3	+7.0
중국 수입 (억달러,%)	4,128	5.2	21,357 ('18)	10.8 ('18)	11.6	+5.6
대중국 수출 (억달러, %)	351	18.1	1,362	25.1	8.8	+7.0
대중국 수입 (억달러,%)	219	12.3	1,072	21.3	10.4	+9.1

자료 : IMF, WTO,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대중 수출 중 비중이 상승한 중간재 위주로 중국 소비·투자 위축, 산업생산 감소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됨

\* 2019년 對中 수출 비중(%) : (소비재) 5.6, (자본재) 15.5, (중간재) 79.4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수출구조 변화>

(백만달러, %)

	2003년			2019년			증감	
	對中 수출액	對中 수출 중 비중(a)	대세계 수출 중 비중(b)	對中 수출액	對中 수출 중 비중(c)	대세계 수출 중 비중(d)	對中 수출 중 비중(c-a)	대세계 수출 중 비중(d-b)
1차산품	181	(0.5)	(25.3)	621	(0.5)	(27.0)	(-0.1)	(1.6)
소비재	1,543	(4.4)	(4.1)	5,962	(4.4)	(8.9)	(0.0)	(4.8)
자본재	6,522	(18.6)	(12.9)	21,273	(15.6)	(24.0)	(-3.0)	(11.1)
<b>중간재</b>	<b>26,859</b>	<b>(76.5)</b>	<b>(25.6)</b>	<b>108,210</b>	<b>(79.4)</b>	<b>(28.2)</b>	<b>(2.9)</b>	<b>(2.6)</b>
기타	5	(0.0)	(2.4)	148	(0.1)	(13.0)	(0.1)	(1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참고2> 사스 확산 추이와 대중국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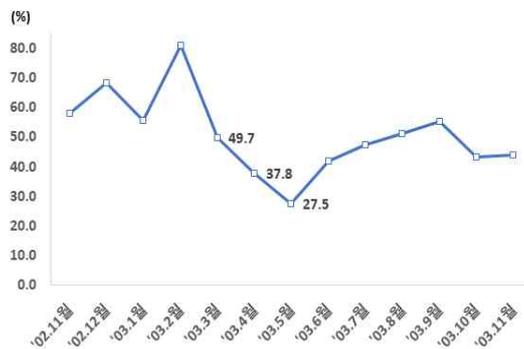
□ 과거 사스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이후 1분기 정도 제한적 영향

⇒ 중국 GDP가 0.2%p 감소시 대중국 수출은 0.5%p(연간 7.4억불) 감소

\* 對中 수출 증감률(%) : ('03.1)55.6 → (2)81.0 → (3)49.7 → (4)37.8 → (5)27.5 → (6)41.9 → (7)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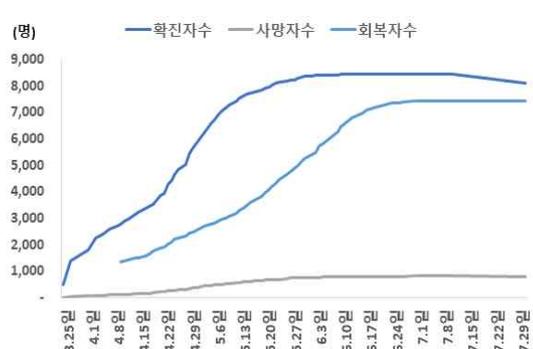
\* 사스 발생(2002.11월~2003.7월) 당시 중국의 GDP 성장률은 0.2%p 하락(ADB)

< 2003년 월별 對中 수출 증감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사스 확산 추이 >



자료 : CEIC

□ 사스 확산기인 3~5월 당시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섬유, 가전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짐

< 2003년 월별 한국의 對中 13대 품목 수출 증감률 >

(전년동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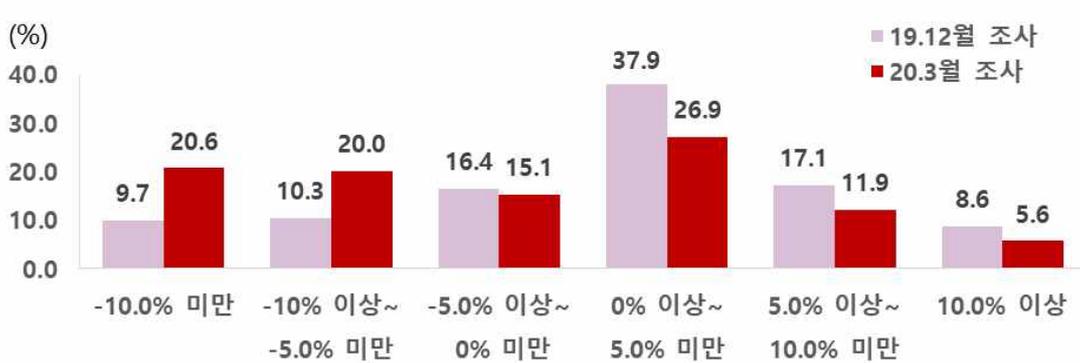
품목명	1월	2월	3월	4월	5월
석유화학	32.4	52.5	9.5	4.8	17.5
컴퓨터	49.2	74.1	79.7	62.3	42.3
일반기계	70.7	110.8	75.7	56.9	48.7
철강	110.9	86.8	45.5	87.3	55.4
무선통신기 기	352.6	228.3	224.4	69.5	49.1
섬유	22.3	54.3	11.0	7.0	2.3
반도체	124.0	183.8	149.3	117.9	110.6
석유제품	29.4	260.8	63.5	17.5	44.7
가전제품	35.0	46.8	60.0	23.9	-4.6
자동차부품	355.1	700.5	562.7	527.4	364.3
자동차	273.3	175.8	264.1	231.2	109.4
디스플레이	98.5	222.3	179.7	56.2	76.0
선박	37.4	1,682.2	-28.7	60.8	-87.4
총수출	55.6	81.0	49.7	37.8	27.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3. 코로나19의 수출기업 영향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설문응답 기업 1,007개사의 55.6%가 올해 자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회복 시점은 3분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지난 12월에는 응답기업의 63.6%가 금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3월 설문에서는 응답기업의 55.6%가 수출 감소로 전망
- 코로나19를 전후로 수출 증가를 전망하는 기업이 19.2%p(63.6%→44.4%) 감소한 반면 5% 이상 수출 감소로 응답한 기업은 20.6%p(20.0%→40.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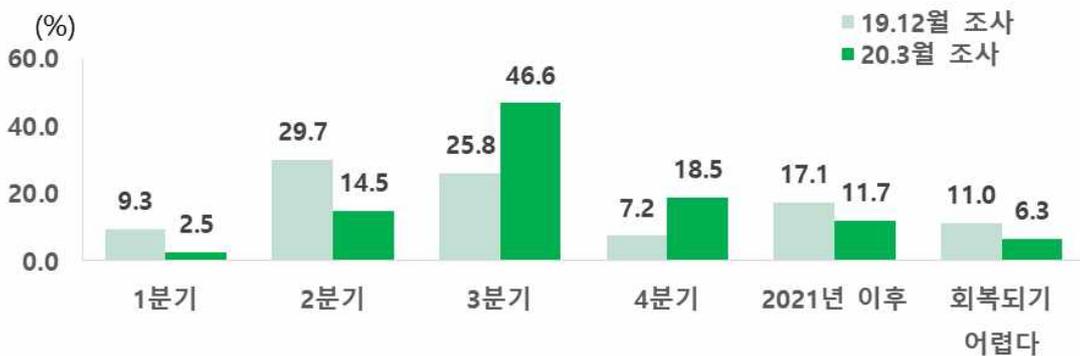
<2020년 수출증가율 전망>



주 : 1. (19.12월 설문) 응답기업 873개사(회수율 43.7%)  
 2. (20.3월 설문) 응답기업 1,007개사(회수율 5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3분기 이후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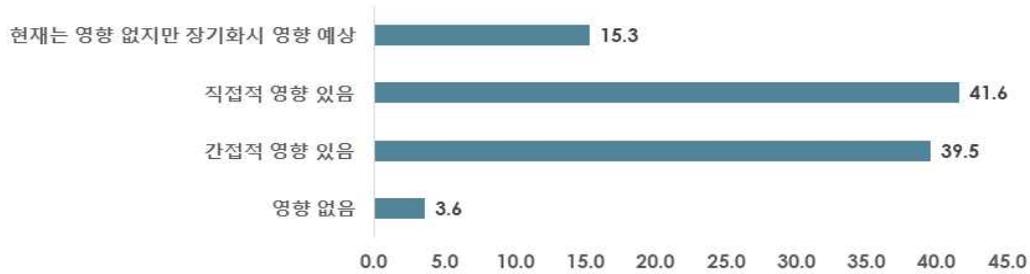
<2020년 수출 회복 시점 전망>



주 : 12월 설문기간('19.12.4~12.13), 3월 설문기간('20.2.24~3.6)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기업의 81.1%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출입 물류 및 통관 차질 등에서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90.1%(응답업체 232개사, 직접 영향 65.5%, 간접 영향 24.6%)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

<수출업계 코로나-19 영향 조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기업들은 수출입 물류 및 통관 차질, 출장 및 전시회 등 마케팅 차질, 원부자재 조달 차질 등의 애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중국 수출기업은 물류·통관 차질(20.7%), 중국 수요 감소(20.7%), 공장가동 중단(19.0%)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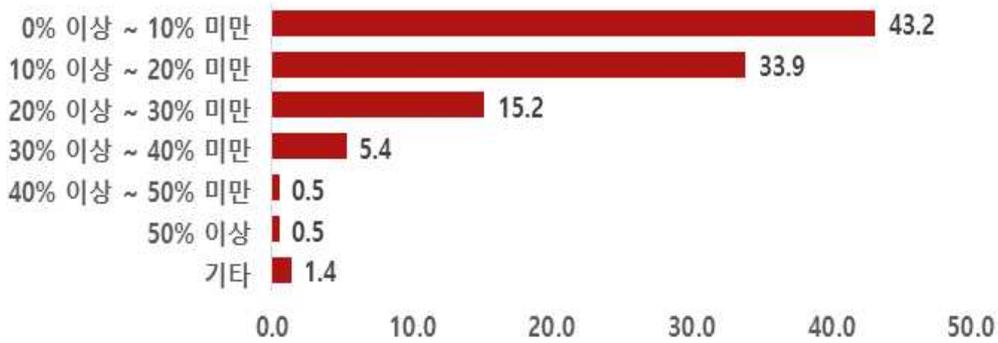
(%)

빈도가 높은 애로사항			피해가 큰 애로사항		
순위	애로사항	응답률	순위	애로사항	응답률
1	수출입 물류·통관 차질	20.8	1	수출입 물류·통관 차질	21.7
2	출장·전시회 등 마케팅 차질	19.8	2	원부자재 조달 차질	19.7
3	원부자재 조달 차질	17.9	3	출장·전시회 등 마케팅 차질	18.4
4	중국 내 공장가동 중단	13.8	4	중국 내 가동 중단	15.3
5	중국 내 수요 감소	12.2	5	중국 내 수요 감소	10.5
6	대금 회수 지연	6.4	6	대금 회수 지연	5.7
7	교류 차질(연락두절, 계약불이행 등)	5.9	7	교류 차질(연락두절, 계약불이행 등)	4.9
8	기타	3.3	8	기타	3.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기업의 43.2%가 코로나-19로 연수출이 0~10% 감소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33.9%는 10~20%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 응답

<코로나-19로 인한 연수출 예상 감소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기업의 43.2%가 코로나-19로 연수출이 0~10%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2.4%는 이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가 아닐수록 대응수단이 없다고 응답
  - \* 기업별 대응수단 없음 비율 : 대기업 22.1%, 대기업 계열사○ 25.4%, 대기업 계열사× 33.4%
-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희망하는 지원 사항으로는 중국 내 물류 및 통관 지원(20.1%)이 가장 큼
- 중소기업은 무역금융 지원(22.2%)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기업 규모별 필요 지원 사항 >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시회·사절단 지원	1.9	5.0	8.0	6.9
중국 내 통관·물류 지원	31.1	23.1	18.1	20.1
대체시장 개척 지원	17.5	13.5	13.3	13.6
신규 바이어 매칭 서비스 지원	3.9	5.5	8.6	7.5
무역 금융 지원	10.7	14.5	22.2	19.6
중국 시장 정보 제공	13.6	9.8	7.6	8.5
원부자재 대체 수급 지원	16.5	21.8	17.3	18.4
중국 기업과의 법률 컨설팅 제공	1.0	1.8	0.9	1.1
기타	3.9	5.0	4.0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IV. 코로나19 이후 수출 유망 품목

### 1. 주요국 경기부양책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은 유동성 공급, 대규모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
- (통화정책)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공개시장조작, 기준을 인하 등을 통해 시장 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 (재정정책) 취약 중소기업 지원, 고용 및 소득 안정화, 소비 촉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확대재정정책 시행

<국가별 주요 경기부양책>

국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RP 매입</li> <li>○ MLF 금리 인하 : 3.25 → 3.15</li> <li>○ 기준율 인하 : 0.5~1.0%p 인하</li> <li>○ 특별국채 발행</li> <li>○ 지방정부 특별채 확대</li> <li>○ 중소·영세기업 금융지원 확대</li> <li>-재대출·재할인 한도 1조위안 확대</li> <li>-3,000억 위안 영세금융채권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li> <li>-전기세, 증치세, 법인세 등 인하</li> <li>-3대 사회보험료 감면</li> <li>○ 고용 및 취업 지원</li> <li>-과소감축 기업 실업 보험료 반환</li> <li>-중소·영세기업 채용 보조금 지급</li> <li>○ 소비쿠폰·구매쿠폰 발행</li> <li>○ '신(新) 인프라' 투자</li> <li>-5G 통신망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 인하 : 1.25 → 0.75</li> <li>○ 국고채 매입(1.5조원)</li> <li>○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li> <li>-대출한도 25조원 → 30조원</li> <li>-대출금리 0.25%로 인하</li> <li>○ 금융안정 패키지 시행</li> <li>-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li> <li>-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감면</li> <li>-승용차 개별소비세</li> <li>-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li> <li>○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확대</li> <li>○ 가계 현금성 지원</li> <li>-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li> <li>○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투입</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 인하 : 1.0-1.25 → 0.0-0.25</li> <li>○ 양적완화(7,000억달러)</li> <li>-국채 5,000억달러 매입</li> <li>-주택담보증권(MBS) 2,000억 달러 매입</li> <li>○ 채권매입 프로그램 확대</li> <li>-3개 대출기관 신설</li> <li>-회사채, 지방채, 자산담보부 증권 매입 등으로 최대 3,000억 달러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부양패키지(CARES, 2조달러)</li> <li>-고용회복과 인프라구축 중점 지원</li> <li>-실업보험 연장, 소상공인 대출 등</li> <li>○ 현금 지급 : 개인 최대 1,200달러</li> <li>○ 기업 및 지방정부 지원금 지급</li> <li>-항공업(약 \$500억), 주·지방정부(\$5,000억)</li> <li>○ 코로나19 지원법(1,040억달러)</li> <li>-유급휴가, 실업자 대상 혜택보장</li> <li>-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등</li> <li>○ 대규모 감세안 논의(3,000억 달러)</li> <li>-근로소득세 0% 인하</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 동결</li> <li>-예금금리(-0.5%), 주요재용자금리(0%)</li> <li>○ 채권매입확대(1,200억 유로)</li> <li>○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도입</li> <li>○ TLTRO-III 강화</li> <li>-대출금리 인하, 대출 규모 확대</li> <li>○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시행</li> <li>-7,500억 유로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기금 조성(250억 유로)</li> <li>-보건시스템, 중소기업 등 집중지원</li> <li>○ EU 재정준칙 일시해제</li> <li>-회원국 재정지출 확대 허용</li> <li>○ 재정지출 및 보조금 확대</li> <li>-[독일] 단기휴가보조금, 영세사업자 보조금 등</li> <li>-[이탈리아] 의료시스템 지원금, 납세연기 등</li> <li>-[프랑스] 450억 유로 패키지 시행, 임대료 면제 등</li> </ul>

자료 : IMF,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기획재정부, 언론 등 참고해 저자 정리

- 코로나19로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World Bank, IMF, UN 등 국제기구 또한 금융지원책 마련
- World Bank는 의료체계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긴급융자지원 패키지를 3.17일 140억 달러로 증액한 바 있으며, IMF와 UN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각 1조 달러 대출 지원 및 코로나19 기금 조성 예정
-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3분기 이후 소비 수요가 반등할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경영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기회 모색 필요
-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전염병에 의한 경기위축은 확산세가 진정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 2003년 사스 때도 중국 경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V자 반등에 성공함
- 특히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확대, 중국인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마케팅과 판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주요국의 정책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금융위기 대비 주요국 정책 여력 비교>

(%)

정책 수단	미국		EU		일본	
	2007	2020	2007	2020	2007	2020
기준 금리	5.25	0.0~0.25	5.0	0.0	0.5	-0.1
GDP 대비 정부 부채('18)	45.2	90.5	62.2	79.7	137.4	198.4

자료 : Fed, BOJ, IMF, Eurostat

## 2. 코로나19 이후 수출 유망 품목

### (1) 코로나19 이후 수출환경 변화와 7대 유망 소비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 속에서도 소비패턴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제품의 수출이 유망
- 코로나19를 계기로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청정 가전,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전망

청정 가전	항균·멸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조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비데 등 청정 가전에 대한 수출 증가
의료용품·의약품	보건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의료용품(진단키트 등)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 확대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삼,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
위생용품	비누, 클렌징용품, 세정제 등 위생용품 소비 증가

- 홈뷰티, 홈쿠킹, 홈트 등 집에서 식사·미용·운동을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간편식품, 주방용품, 운동·레저용품 수출이 유망

홈뷰티	드라이기, 고데기 등 헤어 스타일링 제품과 천연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화장품, 멀티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
홈쿠킹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라면, 레토르트 식품(가공·즉석식품) 등 간편식품과 요리를 위한 주방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전환 등 홈오피스 구축, 소비의 온라인화로 비대면 의사소통 및 배송을 위한 디지털장비, 드론·로봇 필요성 증가

디지털 장비	노트북, 모니터, 웹카메라, 마이크, 빔프로젝터 등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제품 확보 필요
--------	--

-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기가 회복할 시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 7대 유망 소비재별 수출 유망 품목

① 청정 가전	공기청정기, 진동청소기, 의류건조기, 정수기, 비데 등
② 의료용품·의약품	진단키트, 혈압기, 체온계, 자기공명기기, 의약품 등
③ 건강식품	인삼, 홍삼, 비타민 등
④ 위생용품	비누, 손세정제, 소독제, 목욕제품류 기타세정제 등
⑤ 홈뷰티	기초화장품, 화장품, 물티슈, 헤어드라이기, 헤어스타일러(고데기) 등
⑥ 홈쿠킹	라면, 수프, 팽화식품, 주방용품, 가공식품 등
⑦ 디지털장비	웹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모니터, 빔프로젝트 등

<7대 유망 소비재별 유망품목 수출 동향>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청정가전	공기청정기	2	-12.4	3	40.1	3	2.6	1	178.5
	진공청소기	106	-32.7	89	-16.0	74	-17.0	21	46.1
	의류건조기	56	-15.9	23	-58.6	57	146.4	15	53.7
	정수기	437	-11.8	561	28.6	702	25.0	162	20.6
	비데	2	-34.5	3	33.1	3	-1.6	1	117.0
의료용품·의약품	혈압기 등	116	-36.5	109	-5.8	120	9.9	32	20.1
	체온계 등	43	10.0	63	46.9	73	15.6	24	50.5
	자기공명기기	13	84.8	13	-1.5	11	-14.5	2	-4.3
	의약품	3,170	15.8	717	17.3	4,101	10.3	1,374	52.5
	진단키트	381	54.9	394	3.5	217	-45.0	87	67.1
위생용품	비누	128	-3.8	164	28.2	194	18.1	65	52.9
	기타세정제	65	14.8	74	14.5	76	2.2	22	21.0
	소독제	6	13.5	6	3.5	7	13.8	18	870.5
	목욕제품류	14	-17.7	15	5.2	11	-27.2	1	-60.9
	손세정제	89	-7.9	125	40.2	156	24.7	55	62.1
건강보조식품	인삼	67	31.0	81	20.9	82	1.1	21	-9.6
	비타민	48	7.5	61	26.8	54	-12.5	16	6.8
	홍삼추출물	24	-0.8	26	6.2	26	1.6	3	-50.6
홈뷰티	화장품	4,959	18.3	6,274	26.5	6,542	4.3	1,761	16.1
	물티슈	699	74.8	935	33.8	725	-22.5	198	9.2
	기초화장품	3,907	13.7	4,923	26.0	5,322	8.1	1,421	16.7
	헤어드라이기	17	-5.7	14	-15.0	17	24.1	2	-58.3
	고데기	44	-13.5	48	9.7	40	-15.9	7	-17.4
홈쿠킹	라면 등	443	30.6	477	7.7	529	10.8	150	28.5
	수프 등	18	54.3	18	1.6	18	0.0	6	44.8
	팽화식품 등	46	3.9	62	33.7	69	11.9	20	28.8
	주방용품	585	3.0	505	-13.6	487	-3.6	129	18.7
	농산가공품	1,228	7.4	1,336	8.8	1,474	10.3	403	23.4
	축산가공품	491	-6.0	564	14.9	573	1.5	151	15.6
	수산가공품	262	5.9	282	7.9	405	43.5	165	139.1
운동레저용품	296	15.4	301	1.7	280	-6.8	65	1.9	
디지털장비	모니터, 웹카메라 등	1,523	-44.6	763	-49.9	669	-12.4	156	1.9
	SSD	5,945	29.3	7,141	20.1	4,994	-30.1	2,366	16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3) 시장별 주요 수출 유망 품목

#### ① (중국) 간편식품, 건강보조식품, 위생·미용용품, 청정가전 등

- (간편식품) 중국 내 Z세대\*, 1인가구 등 중국 소비층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라면, 수프 등 간편식품 수요 확대

\* Z세대는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

- (건강보조식품)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이 유망

-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염병 유행 이후 인삼, 비타민 등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늘면서 수출이 큰 폭 증가

\* 對中 인삼 수출 증가율(%) : ('04, 사스) 139.6 ('10, 신종플루) 141.2 ('17, 메르스) 86.8

\* 對中 비타민 수출 증가율(%) : ('04, 사스) 138.9 ('10, 신종플루) 91.2 ('17, 메르스) 19.2

#### <對중국 주요 식품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간편 식품	라면 등	117	40.5	104	-10.8	128	22.5	35	46.1
	수프 등	1.2	105.4	0.9	-28.0	0.3	-63.2	0.1	112.7
	팽화식품 등	6	-34.9	12	94.2	12	3.0	5	82.6
건강 보조 식품	인삼	27	86.8	34	28.6	38	11.1	10	-6.1
	비타민	5	19.2	5	21.7	5	-14.6	1	35.7
	홍삼추출물	0.2	-57.0	0.3	28.0	2	638.6	0.4	232.2
농수산식품		1,176	-9.2	1,298	10.3	1,481	14.1	314	-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위생·미용용품, 청정가전) 중국인들의 위생의식이 높아짐에 가정용 위생·미용·청소용품 등에 대한 구매 확대(전염병 이후 대중 수출 증가)

\* 對中 물티슈 수출 증가율(%) : ('04, 사스) 150.8 ('10, 신종플루) 9.1 ('17, 메르스) 84.6

\* 對中 세정제 수출 증가율(%) : ('04, 사스) 51.5 ('10, 신종플루) 19.9 ('17, 메르스) 2.0

<對중국 위생·미용용품, 청정가전, 진단키트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위생용품	비누	64	17.0	73	15.1	90	23.5	28	53.8
	클렌징제품	41	37.0	53	28.5	70	31.9	24	71.2
	기타세정제	18	2.0	19	6.3	20	4.5	6	47.7
	소독제	1.7	88.6	1.8	6.2	1.9	5.6	10	1,631.1
홈뷰티	화장품	1,939	23.0	2,662	37.3	3,069	15.3	840	26.7
	물티슈	303	84.6	445	46.8	383	-13.9	121	29.3
	헤어드라이기	0.7	136.8	0.6	-23.4	1.6	188.0	0.3	-35.6
	고데기	1.0	-13.6	0.7	-31.4	1.7	147.0	2	1,064.8
가전	공기청정기	0.2	-73.4	0.04	-73.1	0.5	1,124.9	0.5	10,273.6
	진공청소기	1.8	-64.9	1.9	9.5	2.1	9.1	1	79.9
진단키트		15	43.2	16	8.6	15	-9.0	2	-6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② (EU) 청정 가전,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 (청정 가전) 알레르기·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항균·멸균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유럽 소비자들의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對EU 청정 가전 수출 증가

<對EU 주요 청정 가전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의류건조기	24	-22.7	9	-63.7	28	219.2	6	70.3
정수기	21	18.7	33	52.1	46	41.7	17	62.9
공기청정기	0.3	-18.7	1	98.3	0.3	-33.2	0.1	-64.6
진공청소기	18	-24.1	19	7.8	4.2	-78.5	3	35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의료용품·의약품) 보건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축하기로 한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
  - \*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보건분야 프로젝트를 진행중
  - 유럽은 고령인구가 많아 가격/품질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산 가정용 의료용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2018년 기준 유럽의 고령인구 비율은 19%에 이르며,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은 헝가리 32%, 불가리아 30%, 독일 29% 등 높은 수준임

<對EU 주요 의료용품·의약품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혈압기 등	23	-36.3	19.7	-15.9	21.3	8.5	7	68.9
체온계 등	2.6	28.6	8.0	211.3	7.1	-11.3	3	126.1
자기공명기기	5.0	44.1	5.0	0.4	7.3	45.5	2	-3.6
의약품	1,083	27.3	1,202	11.1	1,249	3.9	464	111.2
진단키트	67	143.9	69	3.6	70	1.0	36	105.4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화장품)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K-beauty 영향으로 천연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화장품이 유럽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EU 수출 확대

<對EU 주요 화장품·위생용품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기초화장품	114	34.4	169	48.2	163	-3.7	39	-4.8
목욕제품류	0.1	67.5	0.1	-23.4	0.1	-11.8	0.01	36.9
비누류	1.4	65.2	1.8	32.2	2.2	19.9	0.6	-1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③ (미국) 청정 가전, 의료용품, 의약품, 간편식품,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 (청정 가전) 비데, 의류건조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등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증가세

- (비데) 화장지 품귀현상으로 인해 대체재로 비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후 비데 사용 문화가 보편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미국에서 Tushy社 부착형 비데 판매량이 최근 몇 주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

<對미국 주요 청정 가전 수출>

(천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데	79	-54.0	304	286.3	314	3.3	76	4,019.5
정수기	49,331	19.5	54,932	11.4	72,703	32.4	20,250	17.8
공기청정기	56	-26.8	17	-70.1	74	344.7	1	-82.2
진공청소기	3,099	-18.6	5,516	78.0	8,709	57.9	6,602	22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의료용품·의약품·건강식품) 건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 증가
- (홈쿠킹·홈트) 집에서 식사와 운동을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간편식품, 주방용품, 운동·레저용품 수요 증가

<對미국 의료용품, 의약품건강, 건강·간편식품, 운동레저용품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의료·건강	혈압기	25	-24.0	21	-14.6	30	42.0	9	48.2
	의약품	335	375.4	44	32.1	452	2.2	188	30.8
	비타민	9.1	-9.9	12	29.6	11	-4.0	4	25.2
	진단키트	41	238.9	38	-7.5	33	-12.8	9	17.0
홈쿠킹	라면 등	56	17.2	70	24.3	78	12.7	22	32.0
	수프 등	5.0	68.1	5.3	6.6	6.4	21.4	3.2	89.4
	팽화식품 등	14	-3.8	17	23.1	22	28.5	8	39.8
	주방용품	175	34.0	176	0.2	163	-7.0	47	36.5
	운동레저용품	90	20.6	98	9.0	94	-3.3	24	1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디지털장비) 노트북, 모니터, 웹카메라, 마이크, 빔프로젝터 등 홈오피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 장비 수요 증가

<對미국 주요 디지털장비 수출>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모니터, 웹카메라 등	142	10.6	170	19.9	165	-2.9	42	29.7
SSD	1,770	68.4	1,665	-5.9	1,524	-8.5	874	29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V. 결론 및 시사점

- 우리 수출은 1월부터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금년 1월 반도체 등 회복으로 14개월 만에 일평균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했으나, 2~4월 일평균 수출은 12.2% 감소
- 품목별로는 소비위축, 공장 가동중단, 물류차질 등에 따라 2~4월 중 선박·디스플레이·석유화학·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에서 10% 이상 감소
- 2~3월 일평균 수출 감소(-12.2%)의 72.4%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반도체가 차지
- 지역별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에 대한 일평균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회복세가 하락세로 반전
- 수출입 물류 및 통관 차질, 출장 및 전시회 등 마케팅 차질, 수요 감소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對中 수출 감소 기여율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세안(21.9%), 중남미(14.0%) 등의 순임
- 對美·對EU·對日 수출은 미국과 유럽 내 자동차 공장의 일시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물량이 나가면서 3월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
-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움
- 향후 우리 수출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4분기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U자 반등의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

- 우리 수출의 20%를 넘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자동차 등의 공급망 교란, 석유관련 제품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 예상
-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의 수출 감소 우려
- 유가급락에 따라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단가 하락
-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동북아 제조업 밸류체인의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사태 장기화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피해도 큼
- 자동차산업 GVC의 주요 생산거점인 중국, 미국, 독일 등의 자동차 공장 가동중단 또는 부품 조달 애로 발생시 자동차 생산차질 발생
  - IHS Markit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6~15일 멈추면 생산은 144만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부 품목별로는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의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제조비용 증가 및 생산차질이 불가피
  - 정밀화학원료(이차전지 재료 등),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LCD, 자동차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등), 무선중계기 등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임
-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3분기 이후 세계경기가 회복할 시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은 유동성 공급, 대규모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
-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전염병에 의한 경기위축은 확산세가 진정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 속에서도 소비패턴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제품의 수출이 유망

- 코로나19를 계기로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청정 가전,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전망
- 홈뷰티, 홈쿠킹, 홈트 등 집에서 식사·미용·운동을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간편식품, 주방용품, 운동·레저용품 수출이 유망
-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전환 등 홈오피스 구축, 소비의 온라인화로 비대면 의사소통 및 배송을 위한 디지털장비 필요성 증가

① 청정 가전	공기청정기, 진동청소기, 의류건조기, 정수기, 비데 등
② 의료용품·의약품	진단키트, 혈압기, 체온계, 자기공명기기, 의약품 등
③ 건강식품	인삼, 홍삼, 비타민 등
④ 위생용품	비누, 손세정제, 소독제, 목욕제품류 기타세정제 등
⑤ 홈뷰티	기초화장품, 화장품, 물티슈, 헤어드라이기, 헤어스타일러(고데기) 등
⑥ 홈쿠킹	라면, 수프, 팽화식품, 주방용품, 가공식품 등
⑦ 디지털장비	웹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모니터, 빔프로젝트 등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의 경영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확대, 중국인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마케팅과 판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생산과 구매 네트워크, 시장 진출전략을 재점검하고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함
- 이제는 해외 투자 시 생산비용 절감이나 시장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염병, 수출규제, 보호무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규제 개선,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부품·소재와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혁신 수준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함